

천년의 역사와 생태관 지닌 곳

家住碧山峯 내가 머무는 푸른 산기슭
從來有寶琴 옛부터 보배로운 거문고 있어
不妨彈一曲 한 곡조 타는 일이야 무방하지만
祇是少知音 이 소리 듣는 이 얼마나 되리

고려 조 은자인 이자현(李資賢)이 읊은 <낙도음(樂道吟)>의 한 구절이다.

인주 이씨는 중흥조인 이자현(李子淵)을 시작으로 손자인 이자겸에 이르는 동안 딸들을 문종-선종-순종-예종-인종의 비로 남비하여 한 시절을 호령했던 족벌이었다. 그러나 이자현만은 세속의 온갖 영화를 버리고 홀연히 오봉산 청평사로 들어와 은둔했다.

이번 가을 길은 그의 유적(遺跡)이 남아있는 춘천 오봉산 청평사를 찾아 나섰다. 배후령을 넘어 오음리로 들어가는 새 길을 버리고 굳이 배를 타고 소양호를 건너 것은 물속에 잠긴 오봉산의 가을을 보기 위함이다.

■ 가을숲

청평교 다리를 건너면 청평사 선동계곡이 시작된다. 청평사 가는 숲길은 한두 그루 소나무들이 간간히 나타날 뿐 거의 풀참나무를 비롯해 서어나무, 쪽동백, 때죽나무, 물박달나무, 당단풍, 생강나무 등의 활엽수의 세계이다. 단풍이 아름다운 것도 그 때문이다.

■ 공주탑의 풍수

구성폭포 위에 전설의 공주탑이 있다. 오봉산 암릉이 내려와 뭉친 곳에 자리한 공주탑은 전형적인 풍수비보탑이다.

우리 풍수의 비조(鼻祖)인 도선은 자연을 인간과 같은 하나의 생명체로 인식하고, 병자에게 침놓듯이 조화를 잃은 산천에 사탑(寺塔)을 세워 비보한다고 했다. 즉, 국토를 유기체로 보고 비보함으로써 산천을 지킨다는 논리이다.

■ 이자현의 생태사상

이 고려정원에는 이자현의 자연관이 담겨져 있다. 그는 단순한 정치적 은둔자나 풍월적 문인만이 아니었다.

鳥樂在於深林 새의 즐거움은 숲 속에 있고

魚樂在於深水 물고기의 즐거움은 물속에 있다.
使一物失其所 한 물건이라도 제 자리를 잃지 않게 하고
群情各得其宜 모든 것이 각각 마땅함을 얻도록 해야 하니 -<제2표(第二表)>

모든 생명을 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1천년을 앞선 생태주의였다.

■ 영지

영지는 고려 정원의 진수를 보여주는 연못이다. 이자현은 이 영지를 통해 자연과 인간이 둘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영지의 치석(治石)기법은 중국과 일본 정원이 흉내 낼 수 없는 독특함이 있다. 영지 속에 띄운 삼산봉은 갖

다놓은 것인지, 본래 있던 것인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천연덕스럽다. 그 영지 위에 오봉산의 아름다운 자태가 어리게 한 것 또한 절묘한 포석이다. 굳이 사다리꼴을 한 것은 보는 이의 시각을 고려하였음이다.(영지는 원래 타원형 이었는데, 복원과정에서 사다리꼴 방지로 바뀌었다)

■ 능엄선

이 자원은 경지 밝은 선객(禪客)이었다. 그는 물 떨어지는 영지 연못가에 앉아 능엄 삼매를 즐기곤 했다. <능엄경>에 바탕을 둔 능엄선(楞嚴禪)은 고려 중기 간화선 이전의 수행법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

소리는 밖의 소리와 내면의 소리가 있다. 처음에는 밖의 소리에 주목하다가 다음에는 내면의 소리에 들어가고 결국 마지막에는 듣는 성품마저 공(空)하다는 것을 깨닫는 수행법이 곧 능엄선 이근원통이다.

■ 흑삼릉

현재 영지 안에는 수생식물인 흑삼릉(黑三稜)이 그득하게 들어와 자라고 있다. 예전에는 흔한 편이었으나, 공해에 약해서 지금은 귀해졌다. 산림청에서 지정된 희귀식물 가운데 하나이다. 흑삼릉은 뿌리를 물속에 박은 정수식물로, 뿌리가 옆으로 뻗으면서 군데군데에서 줄기가 나와서 번식한다. 여름에 흰색이 가까운 노란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를 맺는다. 열매는 밤송이 같은 능가이 있어서 특이하다.

■ 극락보전 주목

극락보전 옆에 잘 자란 주목 2그루가 서 있다. 안내판에는 수령이 8백년이나 되었다고 한다. 절집 경내에 있는 주목 가운데는 가장 나이가 많은 노거수일 것이다. 주목은 해발 1000미터 이상에서만 자생하는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음지에서도 잘 자라는 늘 푸른 침엽수이다. 재질이 단단해서 예로부터 불상을 만드는데 쓰였다. 주목의 껍질에서 나오는 타액은 탁월한 항암 효과를 나타낸다.

극락보전 지붕 위로 씻יתי 바람을 타고 올라가 속부생이 꽃들이 만발했다.

■ 오봉산 소나무

극락보전 뒤로 오봉산으로 가는 험준하고 깊숙한 산행로가 나 있다. 청평사 주변과는 달리 오봉산 7부 위쪽으로는 온통 바위로 뒤덮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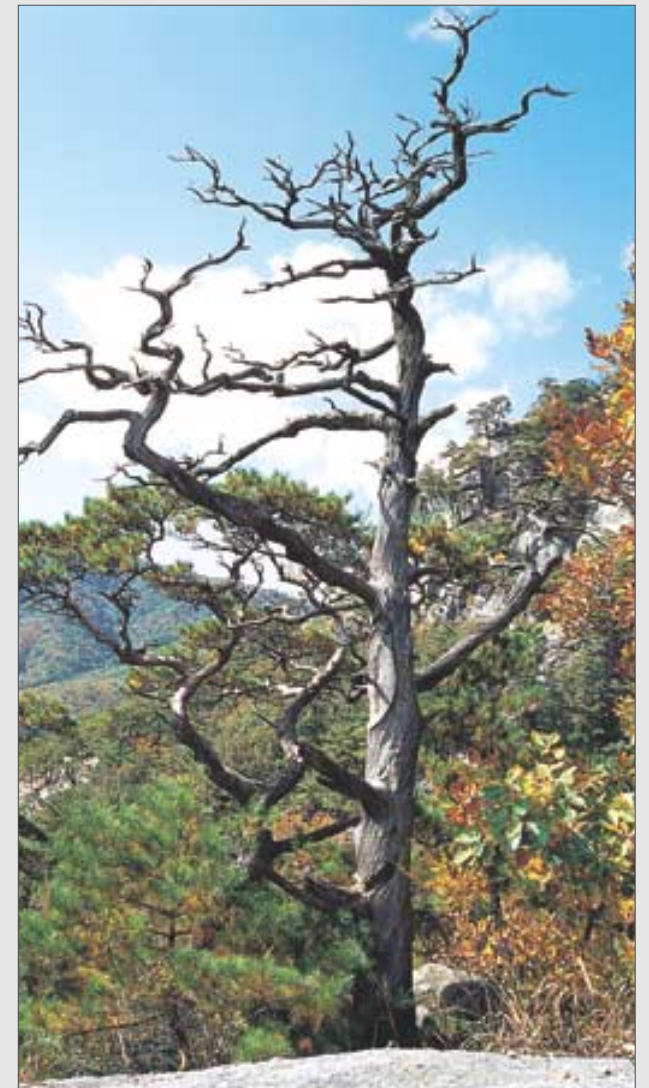
활엽수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 절벽과 기암괴석 틈 사이에 소나무들이 뿌리를 박고 있다. 흙 한줌 없는 바위 틈 사이에 뿌리를 박다보니 모양새들이 분재송처럼 덩지가 작고, 줄기가 휘어지고, 가지들이 싹뿔처럼 이리저리 잘게 갈라져 있다. 그것은 열악한 환경에 적응하는 소나무의 또 다른 지혜이다. 생존의 처절한 부대감은 보는 이로 하여금 생명의 외경을 불러일으킨다.

<http://cafe.daum.net/templeeco>

글 · 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 하는
108사찰 생애기행
(17) 오봉산 청평사



◀사진 위로 부터 고려정원 영지(맨위), 오봉산 고사목(오른쪽 세로), 청평사 올라가는 숲길(왼쪽), 흑삼릉(왼쪽)

정각향 창시 53주년 맞이 명품!

“알갱이로 만들어진 향 인기 돌풍은 단순한 향기를 넘어 생활속으로 오고 있다.”

스트레스 해소는 편백숲이 으뎀 정각향으로 출시 아파트를 숲속으로 정각향이 깨웁니다

- 방안이 지금 숲속이라고 생각해보십시오.
- 집중력까지 생각한 향 알갱이입니다. 방안은 이제 집이 아닙니다. 숲속이다 정각향이 깨웁니다.
- 밖에 있어도 안에 있어도 모든일이 잘 풀릴 것 같은 설렘, 정각향이 그 소중함을 찾아 드릴것입니다.

이젠 몸도 머리도 더 맑게 챙기십시오.



차량용

가정용

체험기

경북 팔공산 ~기도스님께서 전화를 주셨다. 몸에 피곤을 많이 느껴 썩이며 참수이며 졸다는 것을 방안에 나누어 보았으나 변화가 없었는데 정각향을 구입하여 방안에 둔 후 머리가 맑아지고 피곤이 훨씬 덜 하시다 하시면서 일부러 전화를 주셨다.

경기도 김포시

"H"아파트에 사시는 오모씨는 이틀밤에 두었더니 좋지않은 냄새가 없어졌다며 알갱이 몇알씩을 들고 모임에가서 자랑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세계적인 정각향 알갱이를 만드는 법제력!

KOREA Aroma 알갱이 www.Aromamall.org 고객센터 051)633-4070 / 향장인 직통 011-9384-4801

사용법

컴퓨터옆이나 침실에 두시고
도자기 투각 뚜껑에 알갱이를 1/3정도 넣어주십시오
하루 1회 2~3알을 보충하시고 향기를 취향에 맞춰 양을 조절 하십시오.

자동차 사용시에는 통속비닐을 제거 하신후 하트모양을 열고 닫으며 향 조절을 하십시오.
동봉된 받침판을 이용해서서 뒷 좌석위 공간에 두시면 최상급자동차 이미지를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사용후

100% 자연 알갱이를 버리지 마시고 배계속에 넣어 사용하시면 난초, 솔, 국화, 모과 및 박하등의 21가지 상큼함이 편안하고 아늑한 취침을 도와드립니다.

입금계좌 : 국민은행 107-21-0904-797 예금주: 김도현